

## 교구본사 은혜사 고운사 문화·복지활동 활발 경북 포교지도가 변한다

장학사업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등  
지역사회 지지와 화합도 이끌어내

경북지역 교구본사들의 활발한 활동에 힘입어 이 지역 포교지도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하다고 꼽히는 제10교구본사 은혜사와 16교구본사 고운사가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포교에 나서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은혜사 주지 둔관스님은 2008년 취임 초부터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진산식을 대신해 지역포교기금으로 활용한 것을 시작으로, 사찰을 찾는 불자들을 위해 심검당을 개조해 전통차집을 마련했다. 또 동국학원을 설립, 선화여고를 인수해 경북을 대표하는 사학으로 발전시켜냈다. 이런 활동에 이어 최근에는 템플스테이 수련관 공사를 시작, 오는 27일 낙성을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영천에 위치한 육군3사관학교와 MOU를 체결, 장병들의 문화체험과 화랑도 정신 함양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매년 2000만원의 장학기금을 한 톱기로 한 바 있다. 복지활동도 주도하고 있다. 은혜사 입구에 ‘포근한 집’을 설립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40여 명을 보호하는 것을 비롯해 경산백천사회복지관 수탁 운영 등 폭넓은 복지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이 이어지면서, 은혜사는 과거 깊은 산중 교구본사의 이미지 대신

경북의 문화포교 중심도량으로 변모하고 있다. 고운사 주지 호성스님은 지난 8월4일 만장일치로 세 번째 임기에 연임되면서 전법도량 기반구축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 호성스님은 그동안 인근 초등학교 졸업생 전원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생대회·문화탐방, 지역문화축제, 호나눔행복잔치 등을 꾸준히 개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대부분을 불자로 만드는 포교 역량을 보였다. 또 안동에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안동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사찰음식체험관을 신축해 지역 문화를 선도하는 등 포교에 전력해 왔다. 더불어 안거 후 선지식을 초청해 특별법회를 여는 등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관련기사 12면 이리 활동의 결과 고운사가 위치한 의성 뿐 아니라 안동 영주 봉화 영양까지 포교의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 호성스님은 “교구본사의 가장 큰 재원은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화합”이라며 “앞으로 수월함을 선원으로 개척하고, 화엄학원을 개원할 계획이다. 또 최치원문화학과 사찰음식체험관을 연계한 화엄 템플스테이, 안동 신도시 포교당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직수 기자 jsahn@bulgyo.com

## 113명 사미·사미니계 수지

남 72명, 여 41명  
47기 수계교육 회향

지난 8월27일 제8교구본사 직지사 만덕전에서 열린 47기 사미사미니계 수계식에서 남행자 72명이 사미계를, 여행자 41명이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이날 수계식에는 조계종 전계대화상 고산스님, 전계사 중

진스님, 갈마 아사리 성우스님, 교수 아사리 무관스님 외에 교육원장 현응스님, 직지사 주지 흥선스님이 참석해 출가자로서 첫발을 내딛는 사미 사미니들을 격려했다. 한편 8월13일 입재해 16일간 진행된 수계교육에서 행자들은 염불, 습의를 배우고 1보1배, 3보1배 3000배 정진을 하며 하심을 익혔다. 허현경 기자 eonald@bulgyo.com



지난 8월27일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호국의승의날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위원회 발족식 참가 주요 내빈들이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호국의승의날 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 ‘호국의승의날’ 국가기념일 제정하자

불교, 정·관계, 학계  
추진위원회 발족  
청원 서명운동 전개

종단이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스님들을 기리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8월27일 오전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호국의승의날’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의승의날 기념 제정 추진과 서명운동 전개를 공식 선언했다. 추진위원회 발족식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포교원장 지원스님, 종회의장 항적스님,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둔관스님, 대흥사 주지 범각스님,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정우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원흥스님을 비롯해 강창일 국회 정각회장,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호국불교의 중심에는 수많은 승장과 의승들의 숭고한 정신과 고귀한 희생이 자리잡고 있다. 스님들의 고귀한 희생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가의 위기를 맞아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분들을 올바르게 기억하는 첫 걸음은 ‘호국의승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우리 역사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승장과 승군을 기념하고 그분들의 유지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종회 의장 항적스님도 “승장과 승군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염원이 추진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빛을 발하기를 기대한다”며 종회 차원에서 추진위 활동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대흥사 주지 범각스님은 의승의날 제정을 위한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으며,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는 △역사적 의의 및 국가정책적 필요성 △다른 기념일과의 유사·중복 여부 및 형평성 등 국가기념일 제정 기준을 검토한

뒤, “의승군 활동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공훈을 감안할 때 기념일 제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호국의승의날 기념일 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군종교구장 정우스님이 청원 서명운동 전개를 공식 선언했으며,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발족식 참가 주요 내빈들은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호국의승의날 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기념 제정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발족식에 이어 앞으로 추진위원회는 제22교구본사 대흥사에 ‘서명운동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교구본사와 표창사, 감사 등 호국사찰을 중심으로 서명운동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흥사 주지 범각스님은 “범불교적, 범국민적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세미나 등 불교계 내부의 논의를 거쳐 등 호국의승의날로 적합한 날을 결정해 대통령과 국회에 뜻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 ‘한반도 평화 인천선언문’ 채택 세계종교인평화회의 유치한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ACRP 대표의장 추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대표회장)이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의(ACRP) 대표의장에 추대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8월2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의 제8차 총회 폐회식에서 대표의장에 추대됐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다음 ACRP 총회가 열리는 2019년까지 딘 삼수딘 의장과 함께 ACRP를 이끌게 됐다. 또 일본 요시타가 하타케야마 씨가 신임 사무총장에 선출됐으며, 미얀마와 말레이시아가 새롭게 회원국으로 가입해 기존 19개국에서 21개국으로 회원국이 늘어났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과 딘 삼수딘 의장은 ACRP를 대표해 북한 어린이 한 끼 식사 지원 기금으로 1만 달러를 KCRP에 전달했다. 한편 ‘조화 속에 하나되는 아시아’를 주제로 8월26일 개막한 ACRP 총회에는 아시아 25개국에서 450여 명이 참석해 평화교육과 화해, 인권과 행복, 개발과 환경 등을 주제로 한 분과회의와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를 주제로 특별워크숍 등을 통해 평화와 인권을 위한 뜻을 모았다.

논의를 통해 총회에서 참가한 종교 지도자들은 아시아 전역과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인천선언문을 채택하고 “대화와 국제 화합을 전제로 국가간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선언문에서 ACRP는 “전쟁과 갈등은 인간 정신의 패배를 나타내는 것으로 고통과 죽음만을 초래한다”며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은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를 위해서 역사의 부담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총회에서는 ‘한반도 평화 선언’도 채택하고 △한국과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 △현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다양성과 인간의 가치 존중 △평화를 최우선시하며 함께 나아갈 것 등을 촉구했다. 인천=염태규 기자

이와 함께 총회에서는 ‘한반도 평화 선언’도 채택하고 △한국과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 △현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다양성과 인간의 가치 존중 △평화를 최우선시하며 함께 나아갈 것 등을 촉구했다. 인천=염태규 기자

또 총무원장 스님은 2018년 세계종교인평화회의의(WCRP) 총회 한국유치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ACRP 회원국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대표의장에 추대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ACRP 지도자들이 함께 ‘We are the world’를 부르며 화합을 다짐하는 모습. 신재호 기자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1. 모집 부문 및 응시자격

| 채용 분야     | 인원 | 채용형태     | 응시 자격              |
|-----------|----|----------|--------------------|
| 독자관리 및 영업 | 0명 | 정규직 / 신입 | 불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 |

※ 조계종종무행정학교 수료자 우대

2. 전형 방법

1차 : 서류전형 / 2차 : 필기(불교교리 및 3차 : 면접  
※ 모든 전형은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3. 지원 방법 : 본사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이메일 : bud22@bulgyo.com)

4. 접수기간 : 2014년 9월 1일(월) ~ 9월 15일(월) 18시까지

5. 본 의 처 : 불교신문사 업무국 관리부 ☎ 02-730-4489

※ 자세한 내용은 불교신문 홈페이지(www.bulgyo.com)를 참조하십시오 바랍니다.

불교 신문사

2014 가을 관광주간과 함께합니다

다시 시작 합니다  
희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4인 이하 가족 중  
초·중·고 자녀는  
참가비 무료

템플스테이

토닥토닥 템플스테이  
"희망을 말해요"

희망을 만드는 특별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대상| 전국민 가족단위 참가자 자녀 무료 혜택 제공  
(4인 이하 가족 초·중·고 자녀에 한함)  
|장소|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110곳

|신청기간| 2014년 9월 1일(월) ~ 19일(금)

|체험기간| 2014년 9월 20일(토) ~ 10월 5일(일)

※ 신청 기간 내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  
(www.templestay.com)에서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www.templestay.com

Tel : 02 - 2031 - 2000 ~ 2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